‘아시아 동시대 예술 허브’ 힘찬 첫발

21일 막을 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은 ‘아시아 동시대 예술 허브’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차이밍량의 ‘당나라 승려’.

亞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폐막 결산

96회 공연 32회 매진…극장 제작 16편 세계 축제 110회 투어

지역 예술인 참여 유도·일반 관객 눈높이 고려한 작품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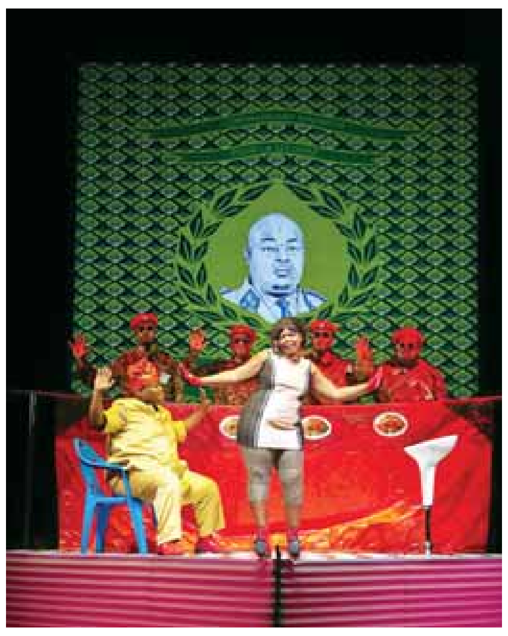
서울 두산아트센터 직원들은 최근 주말이면 광주에 내려왔다.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였다. 강석란 아트센터 예술감독은 “이번 개관 행사에 소개된 작품들이 워낙 핫한 게 많았다. 외국에 출장을 가서도 한꺼번에 보기 어려운 작품이라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보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성환의 작품 등 이번에 자체 제작한 작품들도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이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29개국 33개 작품이 공연된 이번 페스티벌의 관객 수는 1만 675명으로 집계됐다. 총 96회차 공연 중 아핏차퐁 위타세쿤의 ‘열병의 방’, 호추니엔의 ‘만마리의 호랑이’ 등 32회가 매진됐다. 전체 객석 점유율은 86%였고 이중 유료 관람객은 60% 수준이었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세계 공연예술 관계자 200여명이 다녀갔고 계원예술대 융합예술과 등 서울 지역 단체 관객들도 많았다. 지역에서는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등이 관람했다. 반면 지역 일반 관객들의 참여는 미미했다.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동시대 아시아 예술의 허브 역할’ 역할을 하겠다는 예술극장의 기본 미션은 일정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 전체 33개 작품 중 예술극장이 제작(공동제작·재제작 포함)한 작품은 모두 21편이었다. 이중 ‘열병의 방’이 독일 베를린 민중극장 등 10여개 페스티벌에 초대되는 등 16개 작품이 2016년 하반기까지 세계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110회 투어가 예정돼 있다. 이중 60여회는 이번 페스티벌 기간 중에 추가된 투어다.

이번 공개된 작품들은 지역의 기존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낯선 공연들이었다. 상연작이 33편에 이르다 보니 작품마다 호불호가 갈렸고 ‘동시대 예술’ 이라는 장르적 특성 상 일부 작품의 경우 작품을 감상하는 자체가 고역이 된 경우도 많았다. 반면 블렉 베일의 ‘B전시’와 ‘멕베스’, ‘만마리의 호랑이’, ‘야구에 축복을’ 등은 충분히 관객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블렛 베일리의 ‘멕베스’

이번 축제가 공연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장르에 어느 정도 ‘단련된’전문가들과 달리 지역 예술인들과 관객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지역 예술가들과의 접점을 찾는 것은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 중 하나다. 이번 개관 페스티벌의 경우 지역에서는 이이남 작가가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예술극장측은 광주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즌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윈도우’ 공모를 진행, 현재 4개의 작품을 제작중이다. ‘아트웨이숨’의 ‘소리의 숲’이 12월 5~6일 첫 선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4편이 공연되는데 이 작품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지역 예술인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 극장측은 10월 6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중이다.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술인들 역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에 다양한 작품이 공연된 극장과 아틀리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였다.

지역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극장측은 2013년부터 ‘커뮤니티 퍼포머티비티’를 통해 공연 제작 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노력을 해오기는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동시대 예술’을 알리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민들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 같은 시기 페스티벌을 개최한 어린이문화원이 TV 광고까지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데 반해 예술극장의 홍보는 미약했다. 공연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어떤 작품을 봐야할지 난감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낯선 장르를 어려워 하는 관객들을 위한 좀 더 친절한, 맞춤형 ‘길라잡이’ 역할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10월 9일부터 시작되는 시즌제 프로그램에서는 꼭 새겨야할 사항이다.

학생들과 함께 여러 작품을 관람한 최영화 호남대 교수는 “충격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흥미로웠고 작품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며 “매년 9월 진행되는 페스티벌의 기조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별도 행사로 지역 예술인들을 포용하고 일반 관객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신의 향기-고요와 성찰

아트타운 갤러리 내달 6일까지 서기문 교수 초청展

아트타운 갤러리는 서기문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를 초청해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신의 향기-고요와 성찰’전을 연다.

‘아름다운 공존’, ‘물염적벽’ 등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경외를 담고 바쁜 현대인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작품 30여점이 출품됐다.

서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동양 문인화 분위기에 서양화의 색채를 현대적으로 융합한 작품를 선보인다. ‘물염적벽’ 시리즈는 인상주의 색채원리를 쓰면서 붓터치는 다소 거친 표현주의를 구사하고 있다. 화폭을 가득 메운 적벽의 바위와 물에 쪽배나 새, 낚시하는 사람 등 중심점을 줘 차분한 느낌을 준다.

또 눈이 쌓인 빨간 홍시를 까치와 참새가 사이좋게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공존’은 제목 그대로 대립보다는 공존을 지향하는 작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까치로 대변되는 강자와 약자 참새, 먹이 또는 부(富)를 의미하는 감의 평형 구도를 통해 멋스런 은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물염적벽’ 시리즈

전남대 미술교육과·대학원을 졸업한 서 교수는 대동미술상·한국수채화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했고 ‘인간과 자연’, ‘삶과 예술 그리고 동행’ 등 개인·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발한 발상으로 풀어낸 조화

소소미술관 내달 31일까지 단체전

소소미술관이 10월31일까지 ‘소소하게 조화롭게’를 주제로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김일권·김현진·류현자·오혜경·이언·이정기·최순임이 참여해 조화로움을 기발한 발상들로 풀어낸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테라코타, 페인팅, 거울조각 설치, 팝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볼 수 있다.

김일권 작가는 빛과 색의 조화를 화폭에 담는다. 높은 하늘과 대지에 의해 분할된 색면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상징하며 긴장, 대립, 혼합 등을 보여준다. 이언 작가는 작품에 스타들과 저명인사들이 등장시키고 흰 붓으로 물감을 튀겨 내는 방법으로 별을 표현했다. 또, 이정기 작가는 먹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과처럼 겉과 속이 다름에 상처 받는 인간관계를 사과 속 깨진 거울로 표현한다. 입체감이 인상적인 류현자 작가의 작품은 폐한지를 물에 불리고 반죽해 버선 형상을 만든 다음 한국 전통색으로 채색했다. 문의 061-375-1995. /김용희기자 kimyh@

이언 작 ‘오드리 햅번’

대인예술시장 ‘미담 Midam’ 내달 11일까지 윤남웅 미니전시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사업단의 아트상품 창작 워크숍 일환으로 조성된 아트콜렉션샵 ‘미담 Midam’ 에서 10월 11일까지 윤남웅 작가 미니전시를 연다.

윤 작가는 한국 전통 미술의 화려한 색채나 해학적 요소 등을 자신의 작품에 융화시켜 인간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작가 특유의 해학적인 기법으로 세상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람 그리고 놀다’, ‘짜장면을 먹다’, ‘Kiss 다방 Miss Lee’ 등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윤 씨는 중국 노신미술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인(情人)’, ‘브라보 마이 라이프(브라보(Bravo my life)’, ‘進(진) 通(통)’ 등 각종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

‘바람 그리고 놀다’